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2023. 3Q

알기 쉬운 IBKS Special Report

주식 / 채권 / 외환

2023년 3분기 업종별 전망

IBKS 고객 보유 상위 종목

ETF / 스몰캡 연구소

이슈 리포트

www.ibks.com

2023년 3분기 금융시장 전망

주식
04P

23년 3분기 증시, 숨 고르기 후 재 상승 전망
부동산 시장 우려 높아질 듯
반도체 업황 개선 지속되며 24년 경기 회복 기대감 지속적으로 반영될 전망

채권
05P

3분기 국내 채권시장은 금리 하락 추세 전망
하락 추세가 지속될 국내 물가상승률에 기인
만기별로는 단기물 금리의 하방 압력 확대가 예상됨

외환
06P

미 연준의 금리 동결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 본격화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 가능성 등으로 원화 강세 전망
배당금 유출 등 계절적 요인이 소멸됨에 따라 수급 여건도 개선됨

주식

Analyst 변준호

23년 3분기 증시,

숨 고르기 후 재 상승 전망

2023년 3분기 주식시장은 숨 고르기 이후 재 상승 하는 흐름을 전망한다.

3분기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도 누적으로 인해 기술적 반락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이슈가 단기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도 공존한다.

부동산 시장 우려 높아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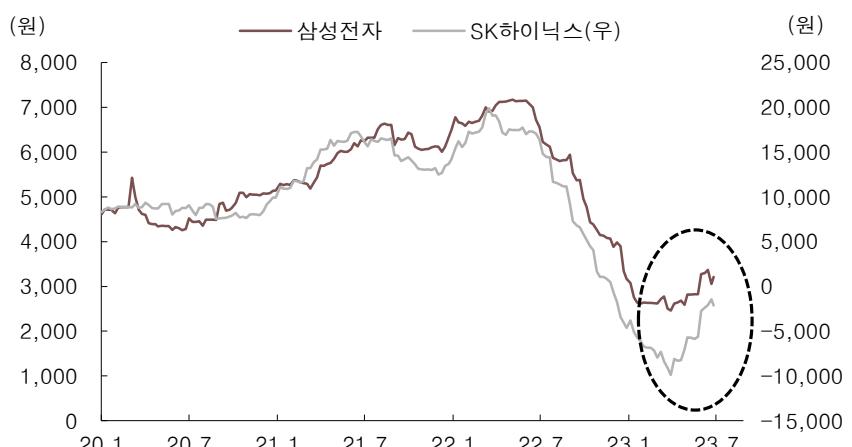
부동산 시장이 긴축 후 유증과 역 전세난 등으로 경계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일부 부실 관련 이슈가 부각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확대되며 중소형은행 리스크가 재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악화 및 부실 가능성을 선 인지하고 있는 만큼 위기 확산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단기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반도체 업황 및 24년

회복 기대감 지속 반영 전망

한편, 우리나라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24년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동시적 감산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 폭이 둔화되고 실적 전망이 상향 전환되면서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 이슈에 따른 조정 압력은 반도체 업황 회복을 고려 시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2M Forward EPS 추이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3분기 채권시장은 완만한 금리의 하락 추세를 예상한다.

국내 물가상승률의 2%대 안착 가능성

국내 물가상승률이 3분기 내 통화 당국이 목표로 하는 2%대에 안착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긴축 정책의 명분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의 하방 경직성이 잔존해 있지만, 고금리 여파가 점차 가시화되며 총수요는 점진적 둔화세를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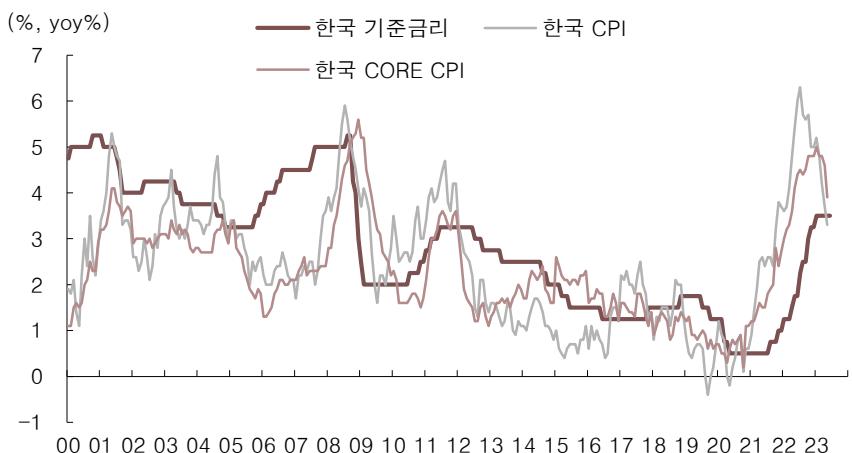
3분기 내 종료될 연준의 금리 인상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대외적 요인 역시 점차 완화되고 있다. 연준의 긴축 부담은 잔존해 있지만, 연준이 주시하는 PCE 물가 상승률 대비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보면 연내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은 확실해진 국면이다. 그에 따라 원/달러 환율과 수입물가지수 상승률의 동반 하락세 속 국내 물가상승 부담은 더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단기물 중심 금리 하락 전망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에 따라 장단기 금리 모두 하락 추세를 예상하지만, 통화정책을 보다 잘 반영하는 단기물의 가파른 금리 하락세를 예상함에 따라 금리 커브는 불 - 스텝을 전망한다.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 기대감 지속되는 국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외환

Analyst 정용택

3분기 원/달러 환율은 1,210 ~ 1,300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연준 금리 동결과
무역수지 개선 움직임
등이 원화 강세 유도

6월에 이어 3/4분기 중에도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우선, 코로나 국면에서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준은 여전히 추가 인상 여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점을 지난 물가와 미 은행 산업 불안 등을 감안 시 동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 및 무역수지의 개선 가능성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실물지표가 아직 양호한 상황에서 2분기 말부터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경기 부양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의 교역국인 중국 경기 반등은 우리 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입
등 수급 여건도 개선 기대

세번째는 수급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가파른 원화 절하를 유도했던 배당금 유출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 소멸됨에 따라 수급 여건이 개선되었고 주식과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추세가 3/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여건이 조금씩 개선되며 우리 무역수지도 점차 개선 기대



자료: Bloomberg, 산업자원부, IBK투자증권

2023년 3분기 업종별 전망

08P

IT/반도체	자동차/기계
IT/디스플레이	음식료
가전/모바일	유통
소재/부품/장비	정유/화학
인터넷/게임	2차전지
통신서비스	제약/바이오

업종별 전망

 전분기 대비 개선

 전분기 동일

 전분기 대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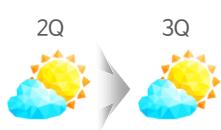
IT/반도체



- 3분기 DRAM 업황은 부진할 것. 바닥에서는 탈출하는 분위기로 개선
- 영업적자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3분기 가격 하락세는 둔화, 4분기 다시 하락폭 커질 것으로 예상
- 3분기는 재고와의 전쟁이 지속될 것. 고객사, 메이커 모두 재고 고점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생산 감소가 목표 대비 크지 않으면 연말에 다시 재고 문제 불거질 것
- 하반기 수요는 하향 조정. 서버 투자 예산 축소, 스마트폰 시장 규모 하향 조정
- AI 투자 효과를 성급히 반영한 주가는 기간 조정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Analyst 김윤호

IT/디스플레이



- 3분기 물량은 하반기 수요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
- LCD TV 패널 가격은 하반기 보합세로 전환할 전망. 2분기까지는 상승세 유지. Set 업체들이 거래선 다변화 모색 중(탈 중국)
- 하반기 IT 패널 수요에 큰 변수는 없을 전망. 2분기 Pull In에 따른 부작용
- 재고는 정상 수준 유지. 2주 수준 유지할 것
- W OLED 물량은 하반기에 집중 될 것. 3분기 보다는 4분기 물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나 수요에 따라 유동적일 것
- 소형 OLED 성수기로 진입. 애플 물량 비중에 따라 차별화될 것. LGD 비중이 지난 해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BOE 비중은 더 낮아질 전망

Analyst 김윤호

업종별 전망

전분기 대비 개선 전분기 동일 전분기 대비 악화

가전/모바일



- 가전 산업은 하반기엔 비수기 진입. 비용 구조 악화
- 모바일은 3분기 신제품 출시 효과 기대. Fold 및 iPhone. 지난 해와 크게 달라진 사양으로 소비 욕구 자극할 것으로 기대
- 중국 관련 부품업체들 하반기 수요 불투명한 상황
- 일부 부품들은 2분기 저점 이후 실적 개선 추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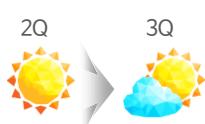


LG이노텍 (011070)

- 2분기 실적 저점. 매수 시기로 판단
- 3분기 이후 실적 개선 모멘텀 기대
- 애플 신제품 카메라 사양 강화로 ASP 상승 효과 기대

Analyst 김윤호

소재/부품/장비



- 2차전지 섹터와 IT 섹터가 번갈아 가며 시장 주도 섹터로 등극하는 모습이 3Q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반도체 섹터 실적 저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반도체 투자 심리 강화 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이번 반도체 섹터 주도 키워드는 지난 2년간 반도체 섹터를 주도했던 DDR5가 아닌 병렬연산 반도체(GPU)와 자동차 반도체가 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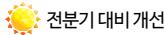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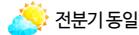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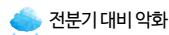


리노공업 (058470)

-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저점이 확인 될 것으로 전망.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AI용 반도체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급성장으로 신규 개발 프로젝트 다수 발생해 관련 매출 성장될 것으로 기대

Analyst 이건재

업종별 전망

인터넷/게임

2Q



3Q

-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 경기 회복이 더딘 것으로 파악. 국내 인터넷 기업의 탑라인 성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빅테크 역시 금리인상 가능성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증가. 따라서 국내 인터넷, 게임 기업들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하반기 출시예정인 네오위즈 'P의 게임', 엔씨소프트 'TL', 카카오게임즈 '아레스' 등 신작 모멘텀 관심 필요
- Top Picks는 NAVER 제시



NAVER (035420)

-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가 8월 경 출시될 것으로 전망
- 선제적 AI분야 투자를 진행했고, 검색, 커머스, 콘텐츠 등 국내외 서비스 분야에서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초거대 AI 출시에 따른 수혜 기대

Analyst 이승훈

통신서비스

2Q



3Q

-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5G 보급률에 긍정적 효과 예상
- 가입자 모집 마케팅이 일시적으로 강할 수 있으나, 신성장동력에 역량 집중으로 비용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
-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 4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규 업체의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 중
- MNO 기반 제 4이동통신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 MVNO 기반의 알뜰폰이 차선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통신 3사는 AI, IDC, 미디어콘텐츠, UAM 등 신성장사업에 주력



KT (030200)

- CEO 선임으로 경영 공백 리스크 해소
- 통신과 비통신사업이 자체 및 계열사를 통해 충분한 역량 보유

Analyst 김강우

업종별 전망

전분기 대비 개선 전분기 동일 전분기 대비 악화

자동차

2Q



3Q

- 글로벌 판매는 1~5월 3,476만대(+10%) 기록. 공급난 완화와 판촉 강화에 기인. 재고가 아직 충분치 않지만 일정부분 채워지고 있고 전년동기 베이스도 높은 편이어서 하반기 증가율은 다소둔화 가능성 존재
- 2분기 실적은 가동률 상승과 물류비 부담 완화 등으로 전년동기비 증가추세가 이어질 전망. 하반기는 전년동기 판매 베이스가 높아 둔화 가능성성이 있지만 3분기 실적은 전년동기 품질비용 반영 기저효과로 인해 양호한 개선 추세 기대



현대차 (005380)

- 6/20 CEO Investor Day에서 전동화 목표를 높이고 전략을 구체화. 2030년 전기차 판매목표를 187만대에서 200만대로 상향(판매비중 34%)하고, 전기차 수익성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
- 2분기부터 분기배당 실시로 주주가치환원 확대 긍정적

Analyst 이상현

기계

2Q



3Q

- 한국기계산업 1~4월 생산과 출하는 각각 +7.1%, +6.7%로 양호. 1~4월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8.8%, +8.9%로 무역수지도 286.5억달러 흑자 기록
- 건설기계주는 통상 하반기 계절적 비수기지만 선진국의 인프라, 발전, 제조부문 투자, 신흥자원국의 자원개발 투자, 중동의 탈석유화 투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등으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
- 방산주는 하반기 폴란드 2차 이행계약이 기대되고, 올해부터 폴란드 수출물량의 실적 본격 반영 등으로 중장기 레벨업 관점 유효



HD현대인프라코어 (042670)

-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 및 자원부국의 광산개발 수요 등 견조
- 비상발전 관련 엔진 수요 증가 및 하반기 K2 전차 엔진 납품도 본격화 기대

Analyst 이상현

업종별 전망

 전분기 대비 개선

 전분기 동일

 전분기 대비 악화

음식료

2Q



3Q

-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이는 1)소비 위축으로 판매량 개선이 어렵고, 2)원가 부담이 온전히 해소되지 못했지만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며, 3)슈퍼 엘니뇨 우려로 곡물가가 반등하고, 4)2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
- 어려운 가운데,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빙과 업계는 성수기 실적 성장 기대감과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됨

 Top Pick

빙그레 (005180)

- 2분기 판가 인상 효과와 우호적인 날씨로 호실적 기대됨. 연결 매출액은 4,007억원(+10.0% yoy), 영업이익은 268억원(+27.4% yoy)으로 추정되며, 컨센서스(매출액: 3,934억원, 영업이익: 235억원)를 상회할 전망
- 또 작년 부진했던 중국 법인 실적이 1분기 개선됐는데, 리오프닝 효과 지속되며 매 분기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Analyst 김태현

유통

2Q



3Q

- 2023년 2분기 소비경기 급감과 오프라인(할인점, 백화점) 주요 업체 비수기 여파로 실적 부진 이어질 전망. 여기에 고정비 부담 가중되면 이익 레벨 하락 예상
- 방한 외국인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행객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며 면세점 실적 회복 다소 지연
- 반면, 외부활동 증가와 단체급식 수요 증가로 편의점 및 식자재 업체 실적은 성장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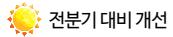
 Top Pick

현대그린푸드 (453340)

- 2분기 식수 증가와 일부 사이트 가격 인상 효과로 호실적 지속 전망
-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배당금 확대 기대

Analyst 박성현

업종별 전망



전분기 대비 개선



전분기 동일



전분기 대비 악화

정유/화학

2Q



3Q

- 석유화학 성수기 효과로 전 분기 대비 전반적인 제품 수요는 증가할 전망. 다만 2분기 역내 크래커 정기보수 이후 재가동 영향 및 중국 공급 확대로 여전히 호황기 대비 업황은 미진할 전망
- 스페셜티/정밀화학 업체 위주로 접근이 여전히 유효할 전망



금호석유 (011780)

- 합성고무, 타 폴리머 대비 공급 증가 제한으로 견고한 수급 상황 지속
- 역내 기초유분/중간유분 공급 과잉 지속으로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올해 하반기 주요 제품 스프레드 개선 전망

Analyst 이동국

2차전지

2Q



3Q

- 미국은 USMCA 협정과 IRA 법안으로 중국 중심의 전기차 벨류체인을 미국 중심의 벨류체인으로 재구축 중
- IRA 세부 법안 발표, 양극재와 음극재는 구성소재로 인정됨으로 향후 국내 양극재 및 음극재 기업의 상당수 CAPA는 국내 증설 예정
- 분리막과 전해액은 부품으로 규정되어 북미 내 공장 증설이 필수적 이게 됨, 현재 스팟성 공급 계약이 대부분인 분리막 기업들은 향후 중장기 공급 계약 수주 기대감이 유효하며 안정적인 실적 달성을 전망
- 향후 IRA의 중요 체크 포인트는 1)AMPC와 2)FEOC



엘앤에프 (066970)

- 테슬라와 하이니켈 양극재 직납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적인 OEM 향장기 공급 계약 수주 기대감 유효
- 리튬, 전구체 등 업스트림 투자 진행으로 수직계열화 구축 예정

Analyst 이승건

업종별 전망

전분기 대비 개선

전분기 동일

전분기 대비 악화

제약/바이오

2Q



3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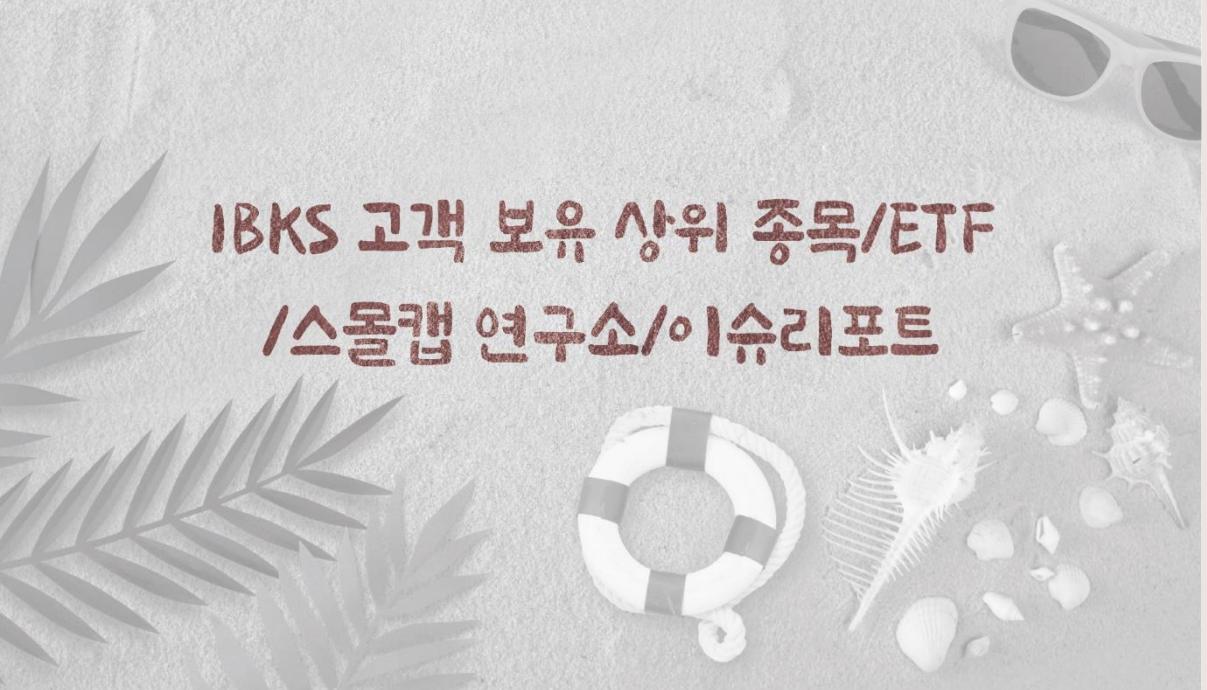
-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당뇨학회(ADA),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등 산업에서 주목도가 높은 주요 학회들 6월 개최 예정
- 우수한 임상 결과 발표/기술이전 성과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투심 분위기 반전 기대
- 다만 불안정한 매크로 이슈로 우수한 성과 기대할 수 있는 개별 종목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



에이비엘바이오 (298380)

- 난공불락 Cold Tumor를 공략할 수 있는 ABL111의 임상 결과, 10월 ESMO 발표 예정
- 임상결과에서 우수한 내약성과 효능이 확인된다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공동자극인자분야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nalyst 이선경



IBKS 고객 보유 상위 종목/ETF /스몰캡 연구소/이슈리포트

16P IBKS 고객 보유 상위 종목

SK하이닉스 (000660)

에코프로 (086520)

17P ETF

KBSTAR IT플러스 (A326240)

KODEX 에너지화학 (A117460)

18P 스몰캡 연구소

펌텍코리아 (251970) / 솔루엠 (248070)

티앤엘 (340570) / 씨이랩 (189330)

20P 이슈 리포트

IBKS ESG Report - ESG순환경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IBKS Collaboration Report - Bio소부장? Buy요!

IBKS 고객 보유 상위 종목



SK하이닉스 (000660)

김운호 연구위원



SK하이닉스는 최근 가장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종목 중 하나임. 실제 실적 개선 보다는 NVIDIA 관련 AI 서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선반영한 것으로 판단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 DRAM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DRAM 가격 하락폭이 이전 전망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재고자산평가손실 규모도 1분기 대비 줄어들 전망

하지만 솔리다임의 NAND는 여전히 2분기 실적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함. QLC 재고 증가에 따른 평가 손실이 확대될 여지가 있음

3분기는 향후 실적의 분기점이 될 전망. 수요 부진은 지속되거나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공급 감소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 지가 변수임. 의미있는 수준의 감소는 2024년 시황 반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



에코프로 (086520)

이현우 연구위원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지주)와 6개의 주요 가족사로 구성됨.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양극재), 에코프로이노베이션(수산화리튬), 에코프로머트리얼즈(전구체), 에코프로씨엔지(리사이클링)를 통해 배터리 업스트림 수직계열화를 추진하며 수익성 확보 전략을 취함

2023년 2분기는 전지재료사업 호조세로 1분기 대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건설 경기 둔화로 전동공구향 양극재 판매량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EV향 양극재 수요 확대로 양극재 전체 판매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IRA 법안의 Critical Minerals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니켈과 리튬. 중장기 전구체 내재화 및 업스트림 계획으로 IRA 대응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 2027년까지 전구체 33%, 니켈 31%, 리튬 26%의 내재화를 구축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

KBSTAR IT플러스 (A326240)

- KBSTAR IT플러스는 FICS 중분류 기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속하는 종목들로 구성된 FnGuide IT플러스 지수를 추종
- IT 업종과 2차전지 기업들을 동시 편입한 형태로 여타 IT ETF와의 차이점 존재. 최근 랠리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 잔재하나 AI 연계 수요 및 국내 반도체 수출 개선 기대가 지속되는 점, IRA 발 2차전지 수혜 기대 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

ETF 개요			
운용사	KB자산운용	LP수	12개
총보수	0.40%	종목수	118개
현재가	18,425원	총자산	1,924억 원
벤치마크	FnGuide IT플러스 지수		
52주 주가 범위	13,915	19,025	



KODEX 에너지화학 (A117460)

- KODEX 에너지화학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분류 중 에너지화학 섹터에 속한 기업들로 구성
-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수요, 이연된 중국 리오프닝 효과 기대감, OPEC+ 감산 가능성 등이 원유 가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 이에 따른 에너지 업종 모멘텀 형성 기대

ETF 개요			
운용사	삼성자산운용	LP수	17개
총보수	0.45%	종목수	36개
현재가	18,700원	총자산	183억 원
벤치마크	KRX 에너지화학		
52주 주가 범위	13,049	19,675	



스몰캡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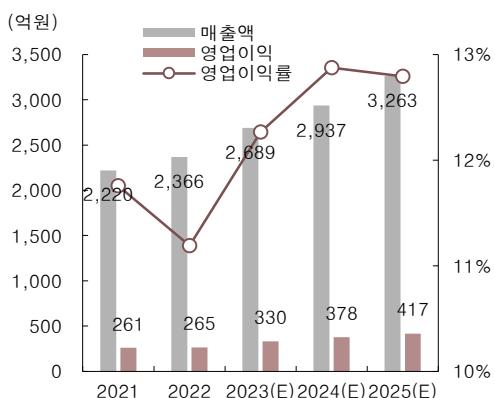
펌텍코리아 (251970)

채윤석 연구원

화장품 용기 전문기업으로 2001년 설립, 2019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인천 부평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매출액 기준 국내 화장품 용기 1위를 달성함

화장품 용기는 크게 자체금형(Pre mold)과 브랜드사 금형(Custom)으로 구분. 동사는 자체금형에 강점을 지녔으며, 매출의 70%가 자체금형으로 이뤄져 있음. 동사는 자체금형 기반 용기를 다수의 인디 브랜드사에게 선제안 및 ODM 형태로 공급하고 단일 형태 용기 판매 비중을 확대하여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고 있음

펌텍코리아 실적 추이



자료: 펌텍코리아,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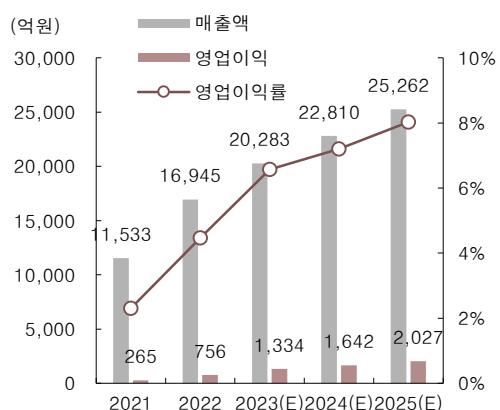
솔루엠 (248070)

채윤석 연구원

솔루엠은 글로벌 ESL(전자가격표시기) 2위 업체로 해당 시장 내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 2023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796 억 원 (+57.2%, yoy), 영업이익 502억원(+234.1%, yoy)으로 서프라이즈 기록. ESL의 성장이 전사 실적을 견인한 반면, 3in1보드와 파워 모듈은 전방 산업인 TV와 서버 시장의 영향을 받아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2분기에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이익의 대부분이 ESL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Re-rating 가능할 것으로 판단

솔루엠 실적 추이



자료: 솔루엠, IBK투자증권

스몰캡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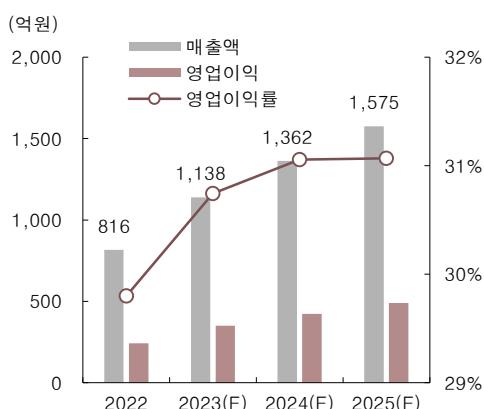
티앤엘 (340570)

채윤석 연구위원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Church&Dwight의 Hero Cosmetics 인수 효과가 본격화되며 동사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동사의 Mighty Patch는 1월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 유통 채널인 CVS에서는 입점 매장을 4,500곳까지 확대함. 하반기에는 유럽 오프라인 채널까지 매출처가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는 중. 관련 매출은 2022년 47억원에서 2023년 101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내 시장에도 론칭 예정

티앤엘 실적 추이



자료: 티앤엘,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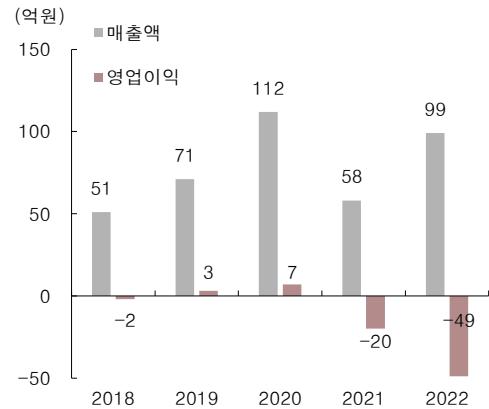
씨이랩 (189330)

채윤석 연구위원

씨이랩은 GPU의 효율향상·개발 환경 등에 강점을 보유한 Uyun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제품 라인업을 타겟 고객군 (Foundation, Cloud, Application) 단위로 세분화하며 생성형 AI 생태계 내 비즈니스를 확대 중

클라우드 기반 AI 영상분석 서비스 'Vidigo'를 출시. 영상 내 출현하는 개체와 키워드 분석 서비스를 제공 중. 향후 영상 요약, 특정 장면 분석 및 추출 등 서비스들을 추가 론칭할 예정으로 타겟 고객을 MCN, 방송사, OTT사업자, 언론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

씨이랩 실적 추이



자료: 씨이랩, IBK투자증권



이슈 리포트



이현우 연구원

글로벌 탄소 배출량 중 21%는 수송에서 발생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60% 달성을 목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으로 배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도 동반 성장할 예정. 배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전기차 -> 폐배터리 -> 리사이클링 -> 유기금속 추출 -> 새로운 배터리 -> 전기차'라는 배터리 생태계 순환 구도가 완성됨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8~12년으로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차 신차 판매 시장과 10년 후행하는 시장이지만 향후 쓸어질 폐배터리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존재.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들의 매장량 및 생산량은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배터리 제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로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공급망 구축 가능

배터리 순환 경제는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e)으로 구분.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SOH) 60~80%는 재사용, 60% 미만은 재활용으로 분류. 재사용은 ESS, E-Mobility 등으로, 재활용은 전처리-후처리를 거쳐 고순도 유기금속(니켈, 코발트, 리튬 등)으로 추출함

글로벌 폐차 발생량은 2023년 16만대, 2030년 426만대, 2040년 4,425만대로 전망되며 Recycle(사용 후 배터리 + 스크랩) 발생량 및 시장 규모는 2022년 29만톤(14조원)에서 2030년 140만톤(67조원), 2040년 510만톤(218조원)으로 예상

관심기업: 성일하이텍(365340), 새빗켐(107600), 아이에스동서(010780)

(2023. 5. 30. 발간)

※ 자세한 내용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리포트



이전경 연구위원
이건재 연구위원

국내 바이오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9.9%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바이오 의료기기와 바이오 위탁 생산(CDMO)이 포함된 바이오 서비스 부분의 가파른 성장세가 부각되고 있음

특히 CDMO 분야의 연간 성장세는 +43.1%로 바이오 산업 평균 성장률인 +19.9%를 압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 CDMO의 급격한 성장이 확실시 되고 있음

투자사이트에서 바라보는 바이오 산업은 크게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과 이익을 바로 창출할 수 있는 CDMO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과거에는 리턴이 큰 바이오텍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동안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바이오텍들이 적어 바이오 산업내 투자는 CDMO산업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국내 CDMO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CDMO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관심기업: 아미코젠(092040), 마크로젠(038290), 대정화금(120240),
마이크로디지탈(305090), 케이엠(083550)**

(2023. 6. 19. 발간)

* 자세한 내용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EMO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11

상담문의 디지털마케팅부 02) 6915-5555

● IBKS Research Center ●

리서치 본부장

총괄/인터넷/게임
이승훈 이사

투자분석부

Strategy
변준호 연구위원

Economy
정용택 수석연구위원

자산배분/ETF
김인식 연구원

Quant
김종영 연구원

Fixed Income
권기중 연구원

Global Strategy
우지연 연구원

기간산업분석부

음식료
김태현 연구위원

통신/지주
김장원 연구위원

자동차/기계
이상현 연구위원

정유/화학
이동욱 연구위원

유통
남성현 연구위원

혁신기업분석부

IT/소재/부품/장비
이건재 연구위원

IT/반도체/디스플레이
김운호 연구위원

제약/바이오
이선경 연구위원

스몰캡
채윤석 연구위원

2차전지
이현욱 연구원